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세션 21, 미가의 회복 약속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21강, 미가의 회복 약속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가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특히 미가서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와 회복의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서에 나오는 종말론적 약속을 신약성서에 비추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미가서에 나오는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1장부터 2장, 3장부터 6장, 7장부터 8장까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들으라는 말씀과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는 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뒤에 심판을 뒤집고 뒤집는 짧은 희망의 약속이 나옵니다. 중심 초점처럼 보이는 책의 중간 부분에는 심판의 짧은 메시지와 구원의 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은 자(remnant)라는 단어는 희망의 세 부분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국과 유다 열방의 악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들을 회복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미가는 그의 사역의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망상과 거짓 희망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소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가가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전파하지 말며 입에 거품을 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욕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망의 제안과 앳수르 위기가 조만간 예레미야 시대에 끝날 것이라는 약속, 바벨론 위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약속.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메시지였습니다. 미가는 만약 이 사람들을 위해 맥주와 포도주를 많이 주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선지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가는 3장 11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과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지도자들은 불의하고, 제사장들은 삯을 받고 가르치며, 선지자들은 은을 받고 점을 행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주께 대하여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냐 하느니라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재앙이 반드시 유다 백성에게 닥칠 것이며 그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는 냉혹한 심판의 메시지와 특히 2장과 3장에서 유다 지도자들을 고발한 후, 이 책의 중간 부분은 희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구절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거의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미가에서 유래했는지, 이사야에서 유래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선지자가 공통된 전통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 중 일부가 미가서에서 확장되는 방식은 그 예언이 이사야에서 유래했으며 미가가 자신의 신학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확장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미가와 이사야가 8세기 유다에서 설교하면서 둘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보다 높게 굳건히 세워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겠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며 많은 나라가 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로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분은 많은 민족들 사이에 판단하시며, 먼 나라들 사이에 강한 나라들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행하거니와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종말론적 소망, 즉 회복의 약속에는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인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미래의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열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미래의 이 나라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확실히 기본적인 예언적 비전과 일치합니다. 우선, 이 구절은 시온의 승영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실제로는 작은 언덕이었던 이 곳이 솟아올라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입니다. 이는 3장 12절에서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수목이 우거진 높은 산이 될 것이라고 한 일을 직접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현재가 반전되어 심판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라들은 이것의 일부가 되기 위해 시온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영광이 예루살렘에 비취고 열방이 와서 그것에 참여하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일부 예언 구절에는 예루살렘을 섬기고, 나라들의 조공을 도시로 가져오고, 더 부차적인 역할을 하러 오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은 동등한 동반자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미래의 왕국에는 애굽에서 앗수르를

거쳐 이스라엘로 가는 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애굽과 앗수르도 모든 나라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과 전쟁이 아닌 정의에 기초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거짓된 평화가 아닌, 정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일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메시아 통치에 관한 환상을 보면 매우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일과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위기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공동체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세기를 살아온 후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목표로 유엔이 설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구상에는 평화의 날이 없었습니다.

이 희망은 아직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사야 9장과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평화 왕국의 패턴과 그림에 따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울 것입니다. 저주가 풀릴 때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말할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적대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평화와 축복과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장 4절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적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0절은 그들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다시는 침략이나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필요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앗수르 위기 동안 겪었던 침략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거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솔로몬 왕국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면서 솔로몬은 그 땅에 평화와 안전과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상되고 있는 것 중 일부는 다윗 왕조의 솔로몬 제국의 영광스러운 시절로의 복귀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그림에서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가서의 중심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있는 기본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다소 혼란스럽고 다소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읽을 때 좌절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미가의 비전의 연대기를 조사하려고 할 때, 가까운 미래에, 그의 생애와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연대순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와 어떻게 부합됩니까?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 질문들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한 로드맵을 갖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회복을 약속하는 미래에 대한 소프트 렌즈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이 미가 시대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시간적으로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것은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가서 4장과 5장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4장 1절부터 8절까지 후기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4장 9절과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할지 주목하십시오. 미가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왜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왕이 없습니까? 당신의 보좌관이

죽었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당신을 사로잡은 고통이요? 오 시온의 딸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신음할지어다.

이제 당신은 도시를 떠나 들판에 살게 될 것입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구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미가는 앗수르 위기, 바벨론 위기 때 사역했고, 그 후에 포로생활이 닥쳐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가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를 보고 기원전 586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고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그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앗수르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다시 언급합니다(4장 11절에서 13절). 모여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로 더럽혀지게 하고 그 눈이 시온을 바라보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산헤립 휘하의 아시리아 군대가 어떻게 그 도시를 포위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그 도시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타작 마당에 단처럼 모으시려는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온의 딸아 일어나서 타작하라 내가 네 뿔을 철로 만들고 네 발을 놋으로 만들 것임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산헤립에 대한 승리와 여호와의 천사가 한밤중에 나가서 그 원수들을 멸할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미가 시대와 앗수르의 위기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기원전 1세기와 메시아의 초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르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보잘것없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상고에, 태로부터 나느니라 고대. 매우 중요한 메시아적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분이 옛날과 옛적부터 나오셨다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의 선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2위이셨고,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고대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고 다윗 왕조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때때로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이해하게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5장 4절과 5절,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자기 양 무리를 치리니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제 그는 땅 끝까지 위대해지고 그들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계에서 나올 이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평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인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인 5장 4절과 5절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5장 5절에서 아시리아의 위기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에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방백을 일으켜 그들을 치며 칼로 앗수르 땅과 니므롯 땅 어귀를 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국경을 밟을 때에 우리를 앗수르 사람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야가 그의 왕국을 세우고 이 평화의 왕국을

세울 때, 그는 지금 유다와 그 땅을 침략하고 있는 적인 앗수르 사람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연대기로 무엇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상세한 연대기를 알려 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미래를 계시하시고 펼쳐 보이실 때, 그들이 반드시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아마도 그들 자신의 생애 동안 일어날 일들, 궁극적인 종말론적 회복에서 일어날 일들을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반영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최종 회복에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까운 장래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앗수르 사람들을 사용하여 심판하실 예정이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원전 701년에 앗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다음 세기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위기에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구원과

심판이 메시아를 통해 올 궁극적인 구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 그리고 구원의 패턴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실 왕국 회복의 측면은 지금이고 아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구원을 주러 오십니다. 그분은 죄에 사로잡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맞서 싸우실 궁극적인 적은 바벨론이나 로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맞서시려는 궁극적인 적은 사탄이며, 그의 백성의 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멸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패턴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도 메시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장 4절부터 9절에 주어진 약속들은 메시아가 앗수르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정사들과 왕들을 쳐부수고 평화의 나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재림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패턴은 최종 회복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며, 궁극적으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미가서 4장 1~6절과 같은 구절에서 구상된 완전한 회복입니다. 따라서 가깝고 먼 패턴이 바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까지 심판과 구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신문을 가지고 여기에서 현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참고 자료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패턴에 가깝습니다. Bruce Waltke는 예언적 메시지의 이러한 특징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고한 사건들을 동일한 역사적 지평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선지자는 마지막 날의 궁극적인 구원과 동일한 지평에서 바벨론과 앗수르로부터의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패배하고 멸망당할

대적을 앗수르로 묘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승리가 미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Waltke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을 동일한 역사적 지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이 연대에 따라 분리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기원전 701년에 거의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은 미가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538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먼 종말론적 미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회복과 그의 왕국의 도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또는 5장 4절부터 9절까지에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을 때 그 일들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 버지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적 비전과 그들이 미래에 대해 보는 것은 사람들이 Blue Ridge Parkway로 차를 몰고 가서 산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눈앞에 산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유리한 지점으로 차를 몰고 가면 그 두 산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앞에 있는 산을 바라보며 서로 등을 맞댄 이 두 산을 봅니다.

그 중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산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행하실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유리한 지점에서 보면 마치 그 산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산 뒤로 운전하고 유리한 지점으로 인해 깊이와 인식이 바뀌면 그 두 산이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약속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시간차에 비추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선지자서를 읽을 때의 어려움 중 하나, 어려움 중 하나는 때때로 이사야나 미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벨론에서 다시 데려오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 평화와 축복과 정의가 있는 놀라운 왕국이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언들을 읽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글썄요, 이사야와 미가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1세기에도 그들은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사야가 약속한 성취와 그 때를 알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들이 회복과 왕국이 즉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방식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의 시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미가서에 나오는 이러한 종말론적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추가된 관점에 비추어, 신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추가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제가 바라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게. 미가는 미가서 4장 1절에서 이 일이 말일에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표현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 비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이 며칠 후에, 또는 여러 날 후에, 또는 여러 날이 오리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신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날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약속의 실현에는 패턴화된 성취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패턴의 첫 번째 단계는 망명에서 귀환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마지막 날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로써 선지자들이 약속한 마지막 날이 이르렀느니라.

아모스, 요엘, 미가, 이사야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는 궁극적으로 말세의 완성 또는 절정이 될 것이며 거기에 있는 약속의 완전한 실현과 완전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른 세션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날은 단지 재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환난기에는 야곱이 고난을 당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시계는 마지막 날의 시작과 함께 똑딱거리고 있으며, 재림 때 그 마지막 날의 계속과 정점과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에 이런 종류의 진술을 발견합니다.

요한1서 2장 18절, “내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서 요한은 1세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종말론적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계시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계시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위대한 종말론적 왕국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와 사역 내내 어려움을 겪게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악하고 악한 길로 행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즈음에 일어나기 시작할 어떤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디모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날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디모데의 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는 미가가 마지막 날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 우리는 마지막 날과 관련된 선지자들의 많은 약속, 그 약속들도 이미 경험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마지막 날의 지금과 아직이 아닌 측면, 하나님 왕국의 현재와 아직이 아닌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이 재림과 관련된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단지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비추어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죄와 그들의 실패를 도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여 그들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과 능력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곳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헌신에서 돌아서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의 가장 긴 구절을 인용한 곳은 그가 새 언약의 약속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당신은 이미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혜택과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 잔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을 세우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새 언약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그러한 유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를 자신의 마음에 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예레미야 31장과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고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우리가 두 번째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과 같은 것 아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요엘은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시리니 그들이 예언도 하고 꿈도 보고 환상과 이 모든 일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주시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종말론적 시대는 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매 저희가 방언도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취한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피터는 그러기엔 너무 이른 아침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말세에 대한 요엘의 예언과 성령 부어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는 이것이 요엘이 예언한 것과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요엘이 예언한 일의 성취라고 언급합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약속에는 이미, 아직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우리가 몇 분 전에 이야기했던 구절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사야가 자기 자신과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구원에 관해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을 선포할 미래의 전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려고 일어나셨을 때 읽은 구절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선포할 전령이 있을 이 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사야가 약속한 선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의 약속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부분에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계획적인 진술로 사용됩니다.

그분은 이사야 61장에 약속된 마지막 날의 메시지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희망의 마지막 날은 이사야 5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통치하시는 방식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 땅에 세우실 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것은 이사야 52장에 약속하신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날 본문은 어떻습니까? 미가서 4장에서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구절을 다루거나 이사야 2장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성취될 구절입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솟아서 있고 백성이 그리로 달려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아래 앉은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니라 그의 포도나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일반적으로 '글쎄,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쟁과 칼을 사용하여 보습을 만드는 것과 같은 모든 종류의 일이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설명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패턴과 마지막 날의 예언과 마지막 약속이 이미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미가서의 이 구절입니다. 4장이나 이사야 2장은 거기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현실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성취, 이 약속의 완성, 전쟁이 없을 때,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있을 때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고 시행되었다는 사실, 즉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의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살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의 시작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종종 성구집이나 책을 읽다가 이런 예언들 중 하나를 통해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후기에 대한 이 약속을 보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그래야 하는 대로 변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우리를 위해 고안된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누구든지 주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종말론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충분히 자주 설교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들의 집으로 너무 편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황이 너무 좋고 번영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언을 전파하면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옮겨졌는데,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약속된 축복과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많고, 사악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말한 패턴을 넘어서, 이사야 2장, 산이 들리고 열방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신약 성경 어디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 4장 시온으로 가서 그들은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이 구절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신약에서 딱 두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오순절 날로 돌아가 요엘서 2장의 약속인 성령 부어주심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시간. 그러나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마지막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구절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또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이며, 여기 미가서 4장에 있는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Greg Beale은 인용문에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읽는 것은 estai 이다 엔 타이스 에사타이스 하메라이,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의 그 특정한 정확한 표현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참조되고 인용된 핵심 본문은 요엘서 2장이지만 베드로는 이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누가는 이 안에 베드로가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2장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장의 이 위대한 구절은 열방이 시온으로 모여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정의와 평화에 관한 것, 그 구절 자체도 부분적으로 체험되고 실현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성서의 예언적 비전에서 사도들이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2장은 열방이 시온으로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나라들에서 제자를 삼을 때, 우리는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대신 주님은 시온에서 그분의 사자와 사도와 선교사들을 보내시며, 그들은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아지는 목적, 종말론적 성전의 목적, 장차 예루살렘의 중심이 될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이 사도들이 나갈 때의 역할이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시온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은 단지 평화와 번영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과 축복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히브리서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위대함을 이해하여 그분에 대한 고백을 포기하거나 돌이키지 않도록 돕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좋아요, 이것은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절기 모임에 있는 천만 천사들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궁극적인 순례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이 말하는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살고, 믿는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늘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하늘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 나아온 것이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씀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의 약속은 우리가 그 예언들을 읽는 것만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자, 이것의 지금 측면, 이것의 영적

성취는 궁극적으로 이것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문자 그대로의 성취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종말론적 약속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이미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신성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약속한 종말적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현재의 현실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있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궁극적인 현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왕국이 마침내 도래한다. 이는 또한 우리가 이 구절을 설교할 때 마지막 날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에서 행하실 일이 오늘날 우리의 의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국의 목적과 왕국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열방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불러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책임이 열방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러 오는 것이고 그것이 왕국의 목적이라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일 왕국의 궁극적인 나타남이 나라들 사이에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단지 이 세상이 지옥으로 가고 다음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왕국 의제는 교회의 의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거나 사람들을 그 왕국으로 부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관참은.

소선지서에는 이 구절들 중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은 선지자서의 종말론적 구절 중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와, 이것은 천년왕국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는 곳에서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가면 아모스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약속이 초대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사도들이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열국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유대인이 되도록 요구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합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런 일을 유대인들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을 근거로 이를 주장합니다. 그는 초대 교회의 선교적 노력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약속하신 것과 다윗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니 선지자들의 말씀도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중건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집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라. 내가 그 폐허를 다시 건축하여 회복시키리라. 이는 남은 인류로 주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을 찾게 하려 함이라 예로부터 이것을 알리시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유대인에게 의무로 주어진 일들을 이방인에게도 의무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는 아모스 9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문제 중 하나는 아모스 9장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읽은 내용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수리하여 그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나라 곧 이 구절은 다윗의 집이 군사적으로 나라들을 복종시킬 왕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 에돔은 다시 다윗 왕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왕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과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읽고 있는 칠십인역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인류가 주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을 찾게 하려 함이라 .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른 판독값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반영한 것은 서로 매우 유사한 두 개의 히브리어 텍스트입니다. 아모스 본문에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대적,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단어를 취하여 거기에서 에돔을 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고보가 읽고 있는 본문의 기초가 되는 히브리어 본문은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

에돔과 인류라는 두 단어의 자음은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모음뿐입니다. 모음은 원래 텍스트의 일부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두 가지로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다윗아, 다윗의 집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아담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동사로 인해 발생하는 약간의 차이입니다. 아모스서에는 다윗의 집이 에돔의 남은 자 야다스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야고보가 읽고 있는 본문은 남은 인류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구한다는 단어는 다다쉬(Dadash)라는 단어입니다. 첫 글자만 다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텍스트를 읽는 방법의 이러한 약간의 차이로 인해 Edom, Adam, 인류는 Yadash가 소유하거나 상속할 것이며 Dadash는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다른 해석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칠십인역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대 교회의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그가 여기서 말하려는 요점을 더욱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 생각은 이방인들이 미래의 왕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다윗이 그들을 소유하고 정복할 때 미래의 왕국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여기에서 열방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구약성서 본문에서 발견되지만, 그것은 단지 70인역의 대체 본문에서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그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James의 진술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의 이 구절에서 구약 토라의 요구 사항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어떻게 추론합니까? 그는 이러한 일이 이방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추론하는가? 글썄요, 일반적인 느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이 구절에서 말할 때, 이방인들이 미래에 유대 민족과 공유할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성경을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역할과 포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의 약속을 읽을 때 나타나는 패턴을 단순히 반영합니다. 선지자들은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왕국을 약속합니다. 미가야, 그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야.

열방이 시온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약속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그러한 약속이며, 그 약속의 실현과 성취는 아직이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약속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과 종말론적 왕국에서 그 궁극적인 성취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12장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21강, 미가의 회복 약속입니다.